



“학교 밖에서 한마음으로 뭉쳤어요”

부천시지역사회교육협의회 주최 ‘사이웃체육대회’



지난 16일 부천시 원미운동장에서 ‘부천시지역사회교육협의회(회장 김희자)’ 주최, ‘부천시지역사회학교 어머니회장단연합회’가 주관한 제 11회 ‘사이웃체육대회’ 행사가 열렸다.

부천시 지역 27개 학교 임원들이 ‘태화, 난초, 국화, 대나무’ 다섯 개의 팀을 이뤄 ‘바구니 터트리기’, ‘파구’, ‘공굴리기’, ‘단체 줄넘기’, ‘이어달리기’ 등 열띤 경기를 벌였다. 응원단장 역할을 맡은 각각의 임원들은 개성 넘치

는 복장으로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열심히 응원해 행사 내내 활기와 흥겨움을 북돋웠다.

이 행사는 평소 각 학교에서 학부부 단체 등에서 다양한 활동으로 이어지던 회원들이 우의를 다지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학생들보다 더욱 신나게 뛰고 달리면서 하나가 되었다.

김희자 회장은 대회를 통해 “학교를 벗어나 서로를 격려하고 북돋아 주며 사랑과 정을 나누는 이웃으로 거듭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하고 “부천시지역사회교육협의회는 이웃과 담을 열고 장담케 인사하며 기쁨과 보람을 주고받는 지역사회, 어른과 어린이가 손에 손을 잡고 희망과 행복이 넘치는 미래를 위해 배우고 가르치며 함께 성장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을 모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권선우 부천교육장과 최운용 경기도교육위원을 비롯해 지역인사, 각급학교장, 각 사회단체 대표, 각 지역사회학교 어머니회 임원 등 지역사회학교 회원들 1000여명이 모두 참여 격려했다.

부천시지역사회교육협의회는 지난 99년 창립했으며 ‘건강한 가정 만들기 부모교육사업’, ‘좋은 학교 만들기 학교통기사업’, ‘학습공동체 만들기 평생교육사업’ 등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김희자 기자 kny@eduyonhap.com

광주하남교육청 주말버스학교 자연 체험학습장 체험

지난 13일 경기도광주하남교육청에서 주관하고 태전아동소방센터(소장 강인구)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꿈가득 사랑가득 행복한 주말 버스학교’ 4회차 체험활동을 성남에 있는 들꽃농원 자연 체험학습장에서 실시하였다.

제4회차 주말 버스학교에는 광주지구 관내 14개 초등학교에서 175여명의 학생들이 지원단 교사,

멘토 대학생, 사회복지사 등과 함께 참여했으며, 자연생태 관찰(나비관찰, 야생화 관찰, 장수풍뎠이 관찰)과 생태체험활동(울렁이 만들기, 나무로 딱따구리 만들기, 들꽃 화분 심기)을 체험 위주의 활동으로 참여 학생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이예현(양벌초 3학년) 어린이는 “토요휴업일에 부모님이 직장에

다니셔서 체험활동을 하는 친구들이 부러웠는데, 이번 들꽃 체험활동에 참여하여 너무 좋았어요. 들꽃이 좋고 토요일이 행복해요! 다음 주말버스가 기다려져요.”라며 참가소감을 말했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체험활동으로 학생 및 학부모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주말 버스학교는 차량비, 급식 및 간식비, 체험학습비 등 모두가 무료이다.



[연재] 반려견(애완견) 길들이기

애완견 눈 관리하기



1. 강아지 눈 관리

강아지도 맑고 밝은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쁜 눈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이 되고 눈물을 많이 흘려 외관상으로 지저분하고 냄새가 나는 강아지를 우리는 키우게 될 것입니다.

2. 강아지가 눈물을 많이 흘리는 이유

강아지도 눈물을 흘리는데 적당히 흘리는 것은 건강한 것입니다. 그러나 강아지의 얼굴을 볼 때 눈 밑의 털이 많이 젖어 있거나 그 부분이 눈물로 털색이 변하여 보기 흉한 갈색으로 변색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냄새 또한 심하여 강아지의 본래 귀엽고 예쁜 모습을 잃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강아지들이 이유 없이 눈물을 흘리지 않는데 많은 양의 눈물이 나는 경우에는 첫째 눈에 티끌이나 먼지가 들어가 눈이 충혈되어 눈물이 나는 경우가 있고 둘째는 눈썹이 눈안쪽에서 자라 눈을 찢러 눈물이 나거나 눈 주변의 털이 눈을 자극하여 눈물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때 강아지들은 눈물을 계속 흘리며 발을 핥고 얼굴을 바닥에 비비며 재채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3. 강아지의 눈에 대한 관리



강아지 눈앞에 나있는 털들이 눈을 자극하여 눈물을 흘리게 하므로 미용가위를 사용하여 눈을 자극하는 털들을 가위로 잘라줍니다. 미용가위로 털을 자를시 위험할 것 같으면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도움을 받도록 합니다. (털이 길 경우에는 고무밴드로 살짝 묶어주어도 좋습니다.)

강아지의 눈에 티끌이나 먼지 또는 털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눈이 충혈 되고 강아지가 눈을 비비 각막에 상처를 입힐 수가 있습니다.

이럴때는 눈 안에 들어간 이물질을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먼저 눈은 만지지 말고 얼굴을 가볍게 마사지로 시작하여 조금씩 익숙하게 합니다.

강아지는 갑자기 자신의 눈에 무엇인가 할 것 같은 불안함을 느끼면 다시는 눈 청소를 안 할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정을 시킨 후에 시판되는 생리 식염수나 아이 클리어로 눈 안에 들어간 이물질을 흘러내리게 씻어 내도록 합니다.

그리고, 눈에는 절대 닿지 않도록 탈지면이나, 휴지, 미끈 천으로 아래쪽의 눈꺼풀을 조금 당기면서 눈의 안쪽 밑 피부의 오염물을 제거하면 작업이 쉬워집니다.

또한, 눈 주위로 물기가 남아 있으면 털이 변색돼 버릴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닦도록 합니다.

마무리로 애견용 안약을 넣어줍니다. 반드시 애견용 안약을 사용 하도록 합니다.

안약을 넣는 방법은 얼굴 피부를 당기고 개가 무서워하지 않도록 사적이 되는 머리 위에서 뒷방을 떨어뜨립니다.

또는 눈을 감게한 상태에서 눈꺼풀을 조금 당겨 벌어진 틈사이로 안약을 넣어 가볍게 물리셔도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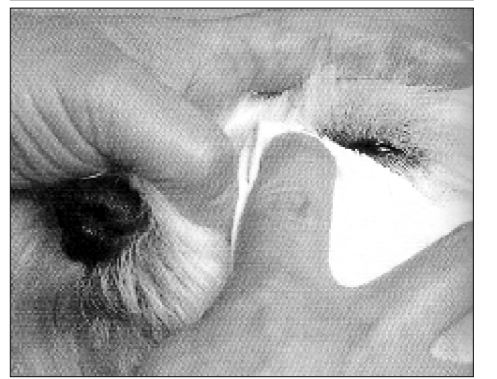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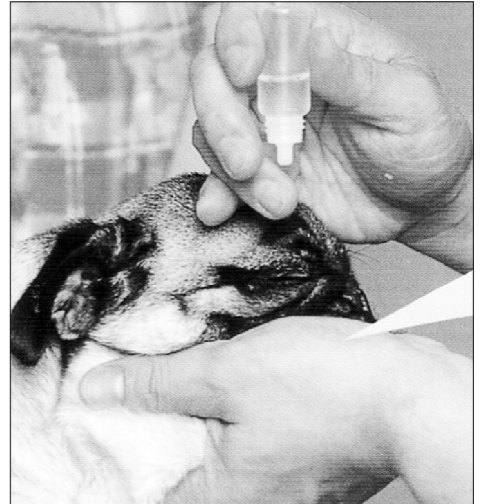
눈을 특별히 신경 써야 할 견종으로는 페키니즈, 시츄, 재패니즈 친, 강탈스 스페니얼, 아메리칸 코카스파니얼, 퍼그, 불독 등과 같이 눈이 들출된 견종은 쉽게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에 쉽게 각막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조심하고 안구 관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질병이 있을 시 그냥 방치 한다면 결막염이나 녹내장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눈이 소중한 만큼 강아지에게도 색을 노랑색과 파랑색만 구분하지만 없어서는 안될 존재입니다.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는 가족이기에 더



꼼꼼하게 체크하여 건강하고 깔끔한 모습을 유지하도록 관리 합니다. <다음호에 계속>



김보연
서경대학 애견동물과 교수

행복한 만남

bosam.co.kr

“변함없이 지켜온 할머니의 손맛”



특별한 맛으로 고객이 먼저 찾아주신 곳이 있습니다.
할머니의 한결같은 정성을 담은 보쌈의 원조
-원할머니보쌈-
전통의 맛과 비결을 직접 느껴 보십시오.